

“헌법 개정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 이뤄야”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제주권 대토론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대신협 주최로 어제 열려
“자치분권 강화 등 차기 정부 정책 포함 위해 대응을”

내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의방신문협의회(대신협)는 10일 오후 2시 제주시리우호텔 시리우홀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제주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종석 대신협 회장 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부부지사, 김태환 전 제주자치도지사, 김태선 전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이상봉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홍우 제주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용근 한라일보 대표이사, 양치석 제민일보 사장 등 대신협 회원사 임원진도 자리했다.

김종석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자치분권 2.0시대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올해, 우리의 지방 자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새로운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지 못한 이제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제도·감독을 받아야 했던 수직·중속적 관계를 벗어나 대등·협력 관계로 지방행정 시스템의 틀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권 정부부지사는 “지방자치법이 30년만에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수평·대등적 관계에서 협력·발전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제주권 대토론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의방신문협의회가 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10일 제주시리우호텔에서 개최한 제주권 대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미래 교육 방향은?

제49회 제주시미래포럼... 오늘 제주연구원서

제주연구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새로운 교육정책과 인재상이 요구됨에 따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를 위한 미래 교육’을 주제로 제49회 제주시미래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11일 오후 4시30분부터 제주연구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자와 토론자 등 최

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라는 발제를 통해 “주민주권론을 토대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또 다가오는 대선 길목에서 후보들로부터 지방분권 개헌과 자치분권 강화를 공약으로 약속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분권 2.0시대-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과 과제’란 발제에서 “특별자

치도 출범 이후 4600여건의 중앙행정 권한과 특례가 제주자치도로 이양 또는 신설됐지만 최종적인 입법 형성권은 국회와 중앙정부에 있다”며 “현재까지 이양된 권한 중에서 제주자치도의 고유사무에 대해선 조례 특례 유형 형식으로 변경해 자 사무에 대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별자치도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이상민기자

해양관광 활성화 위해 마리나 시설 개선

도, 김녕·도두·강정 등 정비 신창 마리나 내년 개발 완료

제주특별자치도는 요트산업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김녕, 도두, 강정 공공마리나 3개소에 총 5억원을 투자해 ‘도내 공공마리나 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마리나 내 노후 부잔교에 대한 시설 개선 및 2015년에 구입한 이동식크레인 점검·보수한다.

제주도는 2011년 김녕항에 공공마리나를 처음 시설한 이후 도두항과 강정항에 공공마리나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682척(연평균 70척)의 국내·외 요트가 김

녕, 도두 공공마리나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부터 강정 공공마리나가 운영됨에 따라 공공마리나 운영 실적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신창 공공마리나가 개발 완료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김녕·도두·강정 등과 연계해 서부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공공마리나 개발을 통해 제주가 동북아 요트 중간 기항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까지 총 12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공공마리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대모기자

전기차 활성화 스타트업-대기업 ‘맞손’

(주)소프트베리-SK에너지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AEV’ (KAIST 위탁 운영) 입주 기업인 (주)소프트베리(대표 박용희)가 SK 에너지와 전기차 시장 활성화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용자 맞춤 충전 정보 서비스’ 등 전기차 충전 서비스와 관련된 새로운 솔루션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그린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업할 계획이다.

(주)소프트베리는 전기차 사용자의 90% 이상이 이용하는 국내 1위 전기차 충전 통합 플랫폼 ‘EV Infra’를 운영하며 실시간 충전기 상태 정보, 충전 포인트 등을 제공하면서 친환경차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SK 에너지는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ESG)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기조에 따라 주유소·LPG 충전소를 거점으로 친환경차

량의 충전 인프라 설치 확산 및 에너지 분야 통합 솔루션 제공 플랫폼 비즈니스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

(주)소프트베리 박용희 대표는 “이번 협업을 통해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서비스 사용 개선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그린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JDC는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사업을 운영하며 ICT, 자율·전기차 분야의 유망한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2021년 6월 현재 51개사가 입주해 166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자율·전기자동차 연구공간인 ‘EV-LAB’을 개소해 해당 분야의 입주기업과 유관 연구기관에 장비 대여, KAIST의 연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내 자율·전기차 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 코로나19 누적 확진 1172
10일 18시 기준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권장업종
메디컬, 스킨케어, 뷰티, 미용실, 전문식당, 카페 등

추천업종
편의점, 약국, 세차, 헤어, 네일아트, 피파샵, 미샤자샵 등

441세대 오피스텔 완판!

이제, 441세대 독점상가 분양이 시작된다!

검증된 입지와 수요분석! 제주 연동 트리플시티 상가에서 성공투자의 기회를 잡아라!

6월 14일 GRAND OPENING

“단지 내 독점수요와 연동 배후수요까지 품은”
초대형 유러피언 스트리트형 집합상가 분양 프리미엄

- 상권 프리미엄**
Premium 1: 반경 1.5km내 공공기관, 학교, 마트, 면세점 등이 위치한 제주 핵심 프리미엄 상권
- 수요 프리미엄**
Premium 2: 제주 유일 명품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으로 풍부한 배후 수요(연동 인구 10만여명)
- 독점 프리미엄**
Premium 3: 트리플시티 오피스텔 441세대 완판 신화로 단지 내 확실한 고정 수요 확보, 대단지 독점상가
- 미래 프리미엄**
Premium 4: 제주 최초의 복합 쇼핑몰 [난민몰]과 인접, 새로운 쇼핑상권 예정지로 급부상
- 가치 프리미엄**
Premium 5: 출전, 연복로, 연동신도시 입구 교차로에 위치한 스트리트형 집합상가, 회소가치 및 높은 환금성
- 상품 프리미엄**
Premium 6: 102대 상가 전용 100% 자주식 주차장으로 상가 이용 고객의 주차 편의성 제공

트리플시티 집합상가분양 총 42실

문의 **711.7722**
064-711-7722

모델하우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167(용담 2동 1819-1)